



전북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거점이 될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이하 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R&D 사업화 전진기지 창업지원 거점 역할 수행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 개관... 전북 연구특구본부 등 입주 기술사업화 가능

전북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27일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거점이 될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이하 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홍용택 과기부 1차관, 강병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김철수 도의회 농산임업경제위원장 및 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해 센터 개관식을 축하했다.

센터는 전북연구개발특구를 농생명 과 첨단소재 기반의 세계일류 연구개발(R&D)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9년 5월 첫 삽을 뜬 후 부지 1만 3,200㎡, 연면적 1만5,457㎡(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총사업비 353억원(국비 173, 특별교부세 15, 도비 165)을 들여 2년 만에 완공됐다.

센터는 기업입주·창업보육 공간 및 업무공간, 다양한 규모의 회의실로 구성돼 편의성을 갖췄고, 특허 지원 및 컨설팅 기관 등 기술사업화 관련기관이 함께 입주해 센터 내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와 '전북첨조경제혁신센터'가 입주해 창업 전주기 지원체계 및 도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육성플랫폼을 통해 기술사업화 및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전북디지털융합센터'와 '전북 금융혁신비데이터센터' 입주로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기반 혁신금융 스타트업 기업 육성에도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주·완주·정읍 등 전북연구개발특구 3개 사업지구의 중심에 위치해 사업지원 및 접근성이 용이하며, 별도공간으로 구성된 근린생활시설에 카페, 식당 등이 입주하면, 조천천 수변공원과 연계돼 지역주민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한다.

도는 군산 강소특구와 함께, 2개 연구개발특구가 전북도의 경제체질과 미래형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공동 특화분야 등을 지속 발굴해 나가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조봉업 도 행정부지사는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는 혁신적인 연구개발로 대한민국의 농생명산업과 첨단소재 산업에 새로운 혁명을 일으킬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거점 공간이 될 것"이라며 "전북경제와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끄는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김성주 의원,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서병)은 중앙·광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연구사업의 범위 확대 등 근거가만 정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대응책 바리 등 외과 질환이 포함될 수 있도록 허혈성 심장질환을 '심혈관질환'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현재 보건복지부령에 근거를 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해 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조사·등록·통계산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신설했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 극복 위해 아세안+3 출범정신 행동으로”

문 대통령, 아세안+3 화상 정상회의 모두발언

“24년 축적 연대·협력 경험 회복 소중 자산”

“아세안 디지털 경제전환 기후위기 대응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추무실에서 열린 아세안+3 화상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아세안+3가 지난 24년간 축적한 연대와 협력의 경험은 함께 더 나은 회복을 이루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역내 국가들의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추무실에서 화상 회의 형태로 참여한 제24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더 나은 회복은 우리가 함께할 때 만들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아세안+3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계기로 출범한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 3국간 역내 회의체다. 역내 회원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에 한·중·일 3개국을 더해 총 1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군부가 장악한 미안마를 제외한 9개국 회원국 정상과 한중일 3국을 더해 총 12개국 정상이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비롯해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3 정상회의가 출범 25주년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동아시아 외환위기 공동 대응을 시작으로 지난 24년 간 다방면에서 협력하며 여러 차례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세계 인구의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은 코로나 아세안 대응기금, 아세안 필수의료물품 비축제를 도입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협력했다”면서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기 위해 아세안+3 정상회의의 출범 정신을 행동으로 옮길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비롯한 보건 협력 강화가 절실하다. 한국은 코백스에 2억 달러 공여를 약속했고 이와 별도로 이번 달 아세안 국가부터 백신 지원을 시작했다”

“며” “지난해 코로나 아세안 대응 기금에 100만 달러를 기여한 데 이어 올해 500만 달러를 추가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국은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한 축으로서 공평하고 신속한 백신의 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기후변화, 디지털, 보건 분야 중심으로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해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수립을 앞둔 ‘아세안+3 협력 워크플랜 2023-2027’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과 포용적 회복,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역내 협력 방안이 충실히 담길 수 있도록 한국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민생안정 후속 지원책 절실”

송하진 도지사,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3차 회의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가 27일 개최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3층)에서 개최된 제3차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는 정부 위원과 최재천 민간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자치분과위원인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 위촉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과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방

안 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및 토의가 이뤄졌다.

이날 송하진 지사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송하진 지사는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는 간단 명료해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혼란스럽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및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방안은 방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면서 “지역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관련된 각종 지원책이 빨리 나오길 학수고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지사는 “정부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강력한 후속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사전에 지역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할 것”을 건의했다.

송하진 지사는 “앞으로도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이 지역에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